

2019학년도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위 원 장	학 교 장
회의록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8:00			
○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학교본부 2층)			
○ 출석위원(9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불참위원(2명) : 000, 000			
○ 참석교직원(9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보고사항 5. 위원장 개의선언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3.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4.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 5. 2019학년도 전북기계공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 (000)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총무부장 00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6회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11명 중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분을 제외한 여섯 분 이상이 참석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원 충족 요건인 여섯 분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000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000)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차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아침 5시 20분에 나와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중기부 장관님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중기부의 MOU가 있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변화되어가다 보니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하자 해서, 중기부와 현대자동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은 3개 공고에서 육성해서, 방과후 활동에서 육성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자는 MOU가 있었습니다.		

교장 (000)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000)	다음은 000 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000)	개의선언을 하겠습니다. 11명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이후 2명의 위원이 더 참석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간사님께서는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000)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는 총 3개의 의안이 있었습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안), 제2의안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 제3의안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1, 2의안은 모두 심의 의결된 대로 잘 진행하고 있고 제3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상정을 하지 못해서 오늘 회의 때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000)	본 회의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5건입니다. 일단 제1, 2의안은 (의결)정족수가 8명 이상이어야 되므로 한 5~10분이면 (2명의 위원이) 올 것 같으니 식순을 바꾸어서 제3의안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모두 동의) 제3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제안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안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제안자 (000)	안녕하십니까. 학년교육부장 000입니다.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은 2019학년도 변화된 점이 두 부분 있습니다. 1학년과 3학년 부분인데, 1학년은 교육청에서 정해진 장소인 해양수련원에서 단순 해양체험을 하거나 운봉에 있는 학생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했던 것을 학교 현재 상황이 학생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등자기성장캠프라는 수련캠프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요, 3학년은 체력단련이라 해서 지리산 천왕봉 등반을 주로 했었는데 3학년 학생들과 담임선생님들의 요구가 그것보다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회의자료에는 4월 20~25일로 일정이 되어있는데 4월로 일차적인

	<p>계획을 세웠었는데 잊그제 공문이 오기를 1년에 전국단위로 영어듣기평가를 하는데 1차가 4월 21~23일, 2차가 9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부득이 전국단위행사는 같은 날이 공동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일정을 변경하였는데 그것이 6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된 것은 2학년 학생들 테마식현장체험학습의 항공권 확보 때문인데,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것에도 나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학년별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제안자 (OOO)	<p>□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고등자기성장 캠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예정일 : 2020년 6월 2일 ~ 6월 4일(2박3일) - 장소 : 추후결정 - 예상경비 : 167,000원/ 1인 (전액 학교지원) - 운영방법 : 위탁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p>- 이하 안전자료 낭독 -</p>
	<p>우선 1학년 현장체험학습(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드리고 2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위원 (OOO)	<p>1학년 야영활동에서 해양수련원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사설수련원에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실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교육청의 수련시설을 이용했을 때 문제점, 두 번째 예산의 비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했을 때와 전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실시)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제안자 (OOO)	<p>먼저, 차이점은 1학년이 해양수련원에 가게 되면, 그곳의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인 해양수련활동과 약간의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주로 있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저희가 월 2회 학년별로 담임협의회를 하는데, 1학년 담임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가 되겠고요. 전년도의 예산까지는 보고 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p>
위원 (OOO)	<p>그건 지금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맡으신 부장님께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뭔가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야 의원님들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p>

제안자 (OOO)	<p>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학생들의 1일자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존감, 마이스터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시켜 주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학생들이 대기업 지향적인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선택 하는데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이 마련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고, 2일차는 자기극복입니다. 천왕봉을 등반하는 계획이고, 3일차는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진로비전을 스스로 설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대로 보관해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할 취업진로 상담에 기초자료로 참고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이나 마이스터 학생으로서의 정체감을 정확히 심어주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것이 되겠습니다.</p>
위원 (OOO)	<p>우리학교는 국립마이스터고로서 1학년 신입생이 결정이 되면 신입생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했었고요, 그에 대해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굳이 학생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야영,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1학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정된 야영활동인데 이것을 목적을 바꾸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p>
교장 (OOO)	<p>제가 부연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방금 O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1학년들 체험인데, 의무는 아닙니다. 학교에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해양수련원에서 아이들이 수련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해양수련원은 해양안전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안)을 냈던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학생들이 입학식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이런 점을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1학년 초에 우리학교의 정체성 내지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또 한 가지 체력단련 부분도, 지금까지 3학년들이 지리산 천왕봉에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3학년과 1학년을 바꾸어서 1학년 때 2박3일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이해 내지 마이스터 정체성을 충분히 심어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련원에 가는 것보다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사결정하게 된 것은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보았습니다.</p>

위원 (OOO)	교장선생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부분은 구성원들과 일부 협의라든가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선생님께서 하신다면 그건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학교 내부에서 좀 더 민주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OOO)	작년에도 보니까 지리산 등반을 3학년이 했던가요? 3학년 등반할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지리산 등반할 때 물 500ml짜리 한 병인가 지급되었다고 들었어요. 등반하면서 아이들이 힘들고 지칠 때 물을 조금 더 지급해서 아이들이 탈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감 (OOO)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3병씩 지급했습니다.
위원 (OOO)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무거우니까 분명 안 가져간 학생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도 물을 여유 있게 지급해서 아이들이 탈진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자 (OOO)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OOO)	이 프로그램 진행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제안자 (OOO)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겨서 해야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장 (OOO)	(안)에 지리산 등반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6월로 옮겨진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낮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전에 모악산이나 미륵산 한 번 준비하고. 다음에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려고 해요. 저희 선생님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만에하나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포괄해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OOO)	위탁을 하면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제안자 (OOO)	그래야죠.
위원 (OOO)	숙소가 지리산을 가려면 지리산 근처로 정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안자 (OOO)	그래야죠. 접근성도 있어야 하고 멀리 떨어지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요.
위원 (OOO)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1학년이 입학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교복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이 없잖아요.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친구들이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들을 열어줘야 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했던 행사를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안자 (OOO)	행사를 하면 하고 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위원 (OOO)	그랬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지리산 갔던 것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부위원장 (OOO)	지리산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3학년에서 다녀왔고, 저도 별로 썩 반갑다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자기 성취를 느낀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성취는 모르겠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언제 또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3학년에서 가는 것보다는 1학년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 (OOO)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극기훈련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데 지금도 우리가 극기훈련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요, 계획이 안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 (OOO)	지리산에 대해서는 제가 산악훈련을 워낙 많이 했던 곳이라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리산의 어느 코스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코스를 잘 선택을 해서 사전에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탈수현상이, 많이 면적이 있는 사람들도 천왕봉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요. 코스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리산이 왜 선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안전성면에서 중요하고요. 아무리 극기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한계가 넘어가는 극기훈련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코스에 대한 검토, 운영주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제가 천왕봉만 열일곱 번 정도, 산악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극한 코스를 많이 다녔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산이라는 것은 정상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특히 다녀오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꼭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OOO)	1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2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OOO)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별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숙박비는 1인당 만 원이라는 것이죠?
제안자 (OOO)	그렇습니다.
위원 (OOO)	그럼 한 방에서 몇 명이 자나요?
제안자 (OOO)	통상 한 방에서 5~10명 들어가는 방으로 합니다.
위원 (OOO)	이 부분은요, 2년에 걸쳐서 지리산 근처에서 숙소를 잡아본 결과, 부장님께서 어떤 숙소를 알아보셨는지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리산 근처에 있는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은 5명이상 들어가는 방도 있지만 많게는 20명도 들어가는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성원들과 디테일한 계획을.....

위원 (OOO)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획한 것은 5~10명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인당 하룻밤에 만 원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제안자 (OOO)	예.
위원 (OOO)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을 재울 때 10명은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재워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식비가 4천 원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이들이 먹을 만 한가요?
제안자 (OOO)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위원 (OOO)	2학년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식비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무엇인가요?
제안자 (OOO)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장, 부대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가 소요됩니다.
위원 (OOO)	교통비는 버스 한 대당 얼마인가요?
제안자 (OOO)	왕복하는 경로로 해서 12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OOO)	그럼 하루에 60만원인가요?
제안자 (OOO)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 (OOO)	경리부장님이 올해 2019학년도 1학년 야영활동 예산을 뺐으려 갔으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조금 얘기를 더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OOO)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스터고는 모든 학부형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내는데, 학부형들이 마이스터고가 중견,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 아이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구태여 1학년 현장체험학습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교육한다고 하면 1학년 때부터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중견, 대기업에 대해 방향을 잡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강소 중소기업이 있을뿐더러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태반입니다. 교육이 좀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하고.....

위원 (000)	교장선생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온 것들이 식대 문제, 숙소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000)	잠시만요. 이것을 자꾸 맴돌지 말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비가 얼마냐, 이것도 여차피 입찰을 진행해봐야 (정확히) 아는 것이고. 167,000원에 2박 3일, 장소는 지리산, 가서 어떤 교육을 한다 등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여기서 협의를 하고요, 디테일한 것은 운영자인 부장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위임을 할 부분이고.
위원 (000)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위원회 또 올라옵니까?
위원장 (000)	왜 올라옵니까? 여기서 기본계획으로 끝내야지요.
위원 (000)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교장 (000)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 식단까지 나와야되는 것이거든요. 식비는 4천 원인데, 반찬 가지수는 몇 개이고 등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예요.
위원 (000)	O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학년과 2학년의 식비 차이가 있어서 제주도가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다.
위원 (000)	아니요. 그건 2학년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요.....
위원장 (000)	그럼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000)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 (000)	의견은 냈는데, 참고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000)	O의원님 얘기는.....
교장 (000)	O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 말 정도 되면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 공부해보니까 대기업쪽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차피 대기업을 갈 학생들의 숫자는 구조적으로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강소기업, 중견기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000)	현대반, 포스코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엄마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아이들은 합격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음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를) 뉘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좀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꼭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런 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 (000)	위원장님,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을 하니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000)	예.
행정실장 (000)	학운위원님들 새로 선출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따로 제본해서 드렸고,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회의장에서도 이것을 배부해드려서 여기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 안건들이 올라오면 학운위원들이 주의 깊게 다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논의를 해주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교장선생님이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실무적으로 해야되는 부분들까지 여기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의하실 때 이 업무편람을 참고하셔서 학운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꼭 짚어주셔야 되는지를 짚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OOO)	그럼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위원장 (OOO)	기본계획서(안)에 대해서 얘기 해야지, 문구 하나 가지고 얘기 하다보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어차피 테마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안전적이고, 계획적이고,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교장선생님께 위임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만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OOO)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영활동이 제목을 바꾸어서 자기성장캠프로 바꾸었을 때는 제안자인 OOO부장님께 네 가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문제점과 비용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가와 기대효과와 구성원들과 협의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O부장님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가기로 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 비용은 방금 경리부장님이 주신 내용을 보니까 1학년이 1,200만원을 2019년에 지출했고만요. 항목은 다르겠지만 4,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장 (OOO)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올해는 1,2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는 4,300만 원이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해양수련원으로 갔잖아요. 당연히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4,300만원까지 들어서 해야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록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학교운영 하는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이 90% 이상 확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나 재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부장님이 스무분이신데, 그 분들 전체가 모여서, 일부 부장님들은 다른 부장님들에게 위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두 번, 세 번 해서 논의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분들 다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부장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OOO)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2학년 현장체험학습(안) 말씀해주십시오.

제안자 (OOO)	<p>□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예정일 : 2020년 6월 1일 ~ 6월 4일(3박4일) - 장소 : 제주도 일원[항공(대한, 아시아나) → 제주도, 항공(대한, 아시아나) → 귀가] - 예상경비 : 500,000원/1인 (수익자 부담(200,000원) + 교육청지원(300,000원)) - 운영방법 : 업체 선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며, 자연지형 탐방, 체험활동, 한라산 등반(완만한 어리목 코스 선택), 공연관람 등 조화롭게 코스를 편성하여 운용함 <p>- 이하 안전자료 낭독 -</p>
위원 (OOO)	단순비교할 수 있는 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수익자부담이었지만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2019년도에 9,200만 원인데 (내년은) 1억 3천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 상승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제안자 (OOO)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초금액입니다. 확정금액이 아닌 것이고, 작년에도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기초금액이 훨씬 높았었습니다.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학생들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1, 2만원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은 요트체험을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에서 그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부위원장 (OOO)	작년에 예약부분에서 늦어져서 아이들이 1차, 2차 나눠서 항공편을 이용했었잖아요. 올해는 그 부분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학부모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작년에 50만원 넘는 돈을 다 내고 수학여행을 보냈어요. 보조해주는 30만 원도 없었고요. 어찌 되었든 보조금을 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질 좋고 이쪽에서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안자 (OOO)	경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것이고요, 작년도에 431,000원 정도 됐습니다. 13만 원 정도 학생들이 부담했습니다.
위원 (OOO)	입찰했을 때요?
제안자 (OOO)	네, 입찰했을 때요. 올해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2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OOO)	최저 입찰인가요?
위원 (OOO)	최저입찰로 해서 43만 원이라고 하면 43만 원에 학생수 곱하면 9,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경리부장 (OOO)	43만 원은 2019학년도 (경비)이고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는 2018학년도입니다.
위원장 (OOO)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위원 (OOO)	<p>첫 번째 궁금한 게, 항공편을 군산에서 타지 않고 청주, 광주에서 가는 것은 왜 그런 것 인가요?</p> <p>군산에는 그 시간에 운행하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60명인데,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아까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 이 출발했다가 같이 도착하는 것을 저희도 생활지도상, 진행상 좋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작년도도 이렇게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도착할 때 광주로 같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도 가능하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예약을 해놓은 상태가 이런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선정이 되면 그렇게 요구 할 것입니다.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말아서 3월 이후에 진행을 하니까 4월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좀 일찍 진행하는 것입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달청 승인도 받아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기부 본부에 가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내려받아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p>
위원 (OOO)	항공편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제안자 (OOO)	그렇죠. 그게 최대 인원입니다.
위원 (OOO)	그럼 아시아나항공 말고 저가항공으로 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 아나항공,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을 왜.....

제안자 (OOO)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우선 지난번 에 봤지만,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래서 갈 때도 이왕이면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안전한 편을 요구하지, 저가 항공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학생 모두 다 그냥 저가항공 으로 합시다라고 요구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 안전을 꼭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OOO)	그 부분은 발제자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솔직히 교육청에서 보조 되는 30만 원 비용 이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에게 요 즘에 부모님들이 1, 2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에 비해서 예산이 라는 것은 항상 전년도 사용 금액 내지는 증감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여쭙보는 것입니다.
제안자 (OOO)	O위원님, 무엇이나면요, 요트체험을 하게 돼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씀드렸고 그 령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수익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숙박이 한 방에 몇 명 예정을 합니까?
제안자 (OOO)	숙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전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단독 숙박을 요구하 고 있고, 방은 획일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여럿이 자는 방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두, 세 명만 자길 원하는 학생들도 있 어요. 그래서 19학년도 할 때도 많은 학생이 원하는 것은 8명, 10명도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방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가기 전에 그것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방배정은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학교만의) 단독숙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하는 방을 골라 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OOO)	그렇게 하시면 별문제 없고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3, 4인이나 소수 하는 것보다 학 생이 원한다면, 저희도 수학여행 가면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한 방에 열 명 뒤엉켜서 잤던 추억이 좋은 것 아닌가, 소수보다는 원한다면 뒤엉켜 있는 게 좋은 추억이 아닌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모든 내용을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OOO)	숙박비는 하루 만 원꼴로 계산이 되었고, 13만 원 중에. 중식이 만 원꼴이고, 석식도 만 원입니다. 조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안자 (OOO)	조식은 숙소에서 같이 숙박비에 포함됩니다.
위원 (OOO)	석식 1회는 무엇입니까?
제안자 (OOO)	석식은 공항에 늦게 도착하니까 들어올 때 저녁을 먹는 식사비입니다.
위원 (OOO)	식비가 한끼당 만 원씩 잡혀서, 아까와는 차이가 많아서, 아까는 숙소에서 먹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차이가 많아서 이 차이가 제주도 물가가 1인당 아이들이 만 원씩 식비를 하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장 (OOO)	위원님, 중식비, 석식비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관광지에서 이동하면서 식당에서 먹는 것이예요.
위원 (OOO)	제가 제주도 가본 적이 오래돼서 일반 식당에서 만 원이 넘어가요?
위원들	그렇죠.
위원장 (OOO)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시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OOO)	그럼 3학년 현장체험학습(안) 말씀해주시시오.
제안자 (OOO)	<p>□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산업체 현장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예정일 : 2020년 6월 3일 ~ 4일(1박2일) - 장소 : 학과별 선택 - 예상경비 : 85,000원/ 1인 (전액 학교 지원) - 운영방법 : 체험학습 특성상 각 학과에서 방문업체를 선정(중소/중견기업 중심) 학과별로 결정하여 진행 <p>- 이하 안전자료 낭독 -</p>
위원장 (OOO)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시오.

위원 (OOO)	2학년 과정에 계획일정을 보니까 활성화위원회라고 해서 담임선생님하고 학생대표만 있는 것인지, 다른 위원이 있는 것이지요?
제안자 (OOO)	학부모위원 두 분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 대표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은 학년교육부에서 학년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학년교육부장, 교감선생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OOO)	<p>저는 1, 2, 3학년 공히 항공기는 별도의 안전규칙들이 정해져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할 때, 특히 관광은 차량들을 보면, 학운위를 전에 할 때도 요청을 했던 것이, 입찰조건이라든가, 입찰이 된 후에 요구하는 사항이 운전자의 신용문제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사고이력과 최근 차량 정비내역들을 요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운전자 성향들이 보면, 요즘 사고의 원인들을 보면, 한눈을 파는 잔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입찰하는 조건에 아니면 입찰이 된 후에 시행하는 조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삽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차로 다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p>
부위원장 (OOO)	제가 거의 이런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 입찰하기 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거의 그 회의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항상 짊고 넘어갔던 것이 차량 연식이나 정비나 그런 것들.....
위원 (OOO)	정비이력을 제출하게끔 하면 그래도 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OOO)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한테 (사용할 버스차량)이 왔을 때 제출한 것(차량 연식, 정비자료 등을 제출한 차량)과 바뀌지 않게..... (그러한 사항을) 항상 제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위원 (OOO)	운전자도 보면, 사실상 성향이라든가, 아무래도 연세 등이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 학생이 단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경각심과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준비하는 것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OOO)	<p>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제 신분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들께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신분입니다. 3학년 체험학습에 대해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19년, 2017년에 시작했죠.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 극기훈련으로 지리산 등반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많은 반대가 있고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1학년을 지리산으로 바꾸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기업이해활동을 위한 체험학습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직접 인턴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회사별로 매칭을 해서 선생님이 동반하고 회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아주 소규모단위의, 기업현장체험학습으로 가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졸업여행의 형태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의구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체로 과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체험학습으로 가야 맞는 것인지 교장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제안자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p>
교장 (OOO)	<p>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교로 온 지가 벌써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제가 학교에 와서 그룹그룹 선생님들과 면담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거든요. 특히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3학년 아이들이 현재 지리산을 등반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학교의 구조가 교직원이 180명 정도 되다보니까 전체가 모여서 토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시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3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학년부장선생님께서 제의했던 것처럼 약간의 중소기업도 방문하지만 거기에도 그 이면에는 3학년 졸업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2학기 때부터는 현장실습을 나가잖아요. 이것은 1학기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p>
위원 (OOO)	<p>O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선생님이 다 하셨습니다.</p>
위원 (OOO)	<p>예, 알겠습니다.</p>

위원장 (OOO)	<p>이 (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전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최고의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것 고맙고요, 본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모두 동의)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전에 대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제3의안인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제 다시 제1의안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p>
제안자 (OOO)	<p>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4의안이 그렇게 긴 안전이 아니거든요.</p>
위원장 (OOO)	<p>4의안이요? 학교발전기금 금형 4백만 원 기부받은 건이요? 알겠습니다. 먼저 합시다. 하 시죠.</p>
<p>제4의안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안전설명</p>	
제안자 (OOO)	<p>안녕하십니까. 금형설계제작과 교사 OOO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안전은 기부물품에 대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금형설계제작과에서는 교육부 주관 명장공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대한금형명장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무 명 정도 선발 학생들이 금형설계.제작기술을 전수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p> <p>□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사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아크릴금형 제작 기증) ○ 사용목적 : 학생 수업(금형설계제작과 교보재 및 명장공방지원사업)에 활용 ○ 기부금액 : 4,016천원(물품 기증)
<p>- 이하 안전자료 낭독 -</p>	
위원장 (OOO)	<p>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없음) 명장이 우리학교에 기부한 물품, 우리 학생들이 참고할 사항이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전에 대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제4의안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p>
위원 (OOO)	<p>잠시만요. 명장공방사업이 올해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p>

제안자 (OOO)	교육부 사업인데 저희가 4년차를 했었고요, 이 사업은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OOO)	그러면 지금 명장공방실이나 셋팅이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제안자 (OOO)	지금 생각은 일단은 제가 마지막 성과보고회를 갔을 때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나누어 줘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부 소속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해당이 되는지는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공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OOO)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명장께서 오셔서 사무실에 상주해서 우리 아이들과 4년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올해로 중단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우리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면요?
제안자 (OOO)	2,5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 받은 것은 2,500만 원 정도.
위원 (OOO)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명장공방사업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추경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명장공방 사업이 4년 했는데 내년에 사라지는 것보다 명장실이 다 셋팅이 되어 있는데.....
교장 (OOO)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장공방사업이 원래 탄생된 배경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전체 교육부 예산 중의 4% 정도 됐었어요. 4%가 11조 정도 되는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쪼개서 시·도교육청에 내려준 돈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특별교부금을 좀 줄여라, 그리고 나머지 1%를 시도에 그냥 주어서 시도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깐 3%로 줄었거든요? 3%로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의 파이가 줄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를 담당하는 직업교육정책과에서 어떤 것을 줄일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취업역량강화사업과 글로벌 현장학습과 공방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 나누어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왔는데, 시·도교육청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 (OOO)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인건비 상승, 고정비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무 분이 넘는 부장님들이 논의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이 되어있으니까 동아리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겠는가 하는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아직 편성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OOO)	그와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같이 의견을 나눈다면, 산업현장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그분들에게 연간 100시간을 보장하다가 그쪽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60시간으로 제한시간을 정해서 연간 60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60시간은 우리학교 예산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쪽으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OOO)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의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의안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안전설명</p> <p>안녕하십니까. 제1의안, 제2의안 제안설명을 드릴 총무부장 OOO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p>	
제안자 (OOO)	<p>□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관련 규정 개정안(지역위원의 당연직 조항 삭제 및 타학교 위원 겸직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 이하 안전자료 낭독 -</p>	
위원 (OOO)	우리학교의 기구 구조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 전의 누군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학교의 규정개정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합니까? 우리학교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제안자 (OOO)	아닙니다. 우리학교 학칙이, 규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선도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여기서 심의가 되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OOO)	그게 성문화되어 있습니까?
제안자 (OOO)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규정 개정절차를 따로 밟지 않습니다.
위원 (OOO)	제 질문은 문서화 되어있느냐, 그 문구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안자 (OOO)	문구까지는 찾아봐야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학교 규정 중 여섯 개의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통과가 된다, 물론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결과를 교장선생님께서 결재를 하시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교장 (OOO)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도 처음에 학교에 와서 혼동스러움이 있었어요.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는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조례나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도교육청 내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통과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학교는 조그마한 교육청 기구인 거예요. 우리학교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 규칙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상급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OOO)	이게 절차가요,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사실 몰라서 여쭙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직원 회의에 부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가 이 학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올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규정개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학교가.
제안자 (OOO)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심의가 되면 (다시 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OOO)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 없습니까?(없음) 추가 질의나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인, 현재 11명 중에서 9명이 참석했는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1의안인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2의안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제2의안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안건설명</p>	
두 번째 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OOO)	<input type="checkbox"/>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예·결산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하 안건자료 낭독 -	
위원 (OOO)	우리학교는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고로서 도교육청의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학교 학칙입니다. 교복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이 세 가지가 법령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읽어주신 것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예결산소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교복소위원회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조례인가요, 지침인가요? 아마도 OOO 위원께서 교복담당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OOO)	제가요? 제가 관련 이야기를 아는데요. 교복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할 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도 급식하고 교복 공동구매가 의무였다가 시행령이 바뀌면서 급식소위원회만 의무로 바뀌고 교복소위원회는 자유로 졌습니다.
위원 (OOO)	시행령이 바뀌었나요?
위원 (OOO)	예,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OOO)	개정된 사항은 뒤에 개정된 근거가 나오는데, 확실한 건가요?
위원 (OOO)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교복소위원회를 같이 해보셨잖아요, 운영위원회에 교복소위원회를 반드시 둔다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OOO)	교육청에 질의해 본 결과 교복소위원회는 교복에 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위원 (OOO)	많이 자율화가 되어서요, 이제는. 여기서 대로 교복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결산 소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라고 하고 교복소위원회는.....
위원 (OOO)	아니,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급식소위원회이고 예결산 소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중기부의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교육청의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니까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 (OOO)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복소위원회가 있고 급식소위원회가 있고, 예결산소위원회, 이 세 위원회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시행령 상에 있는 것은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 두 개는 학교에 자율권을 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북도 지침을 보면 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학교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안)을 마련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을 그대로) 놓고 다음에 교복소위원회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다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개정(안)을 또 올리면 어떨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이기 때문에. 이 (안)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교복소위원회 부분을 빼고 다시 한번 다음 운영위 할 때 올리면.....
위원 (OOO)	그러면 여기서는 수정(안)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교장 (OOO)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OOO)	제가 한 번 여쭙볼게요. 근데 이것을 왜 안건으로 올렸습니까?
위원 (OOO)	법령에 쓰여있으니까요.
위원장 (OOO)	어느 법령에 쓰여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복소위원회는 필요하면 다음에 할 수도 있다, 결국 개정(안)대로 가게 되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 (OOO)	예.
교장 (OOO)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 위원님께서 하나 빼자고 하셔서.....
위원장 (OOO)	예결산소위원회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별문제 없지 않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 없습니까?(없음) 추가 질의나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인, 9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2의안 전북기계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마지막 제5의안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의안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설명</p> <p>안녕하십니까. 경리부장 ○○○입니다. 2019학년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1회 추경 편성 이후 목적사업비 교부에 따른 세입·세출 변동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재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p>	
제안자 (OOO)	<p>□ 예산구분 : 추경2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예산액 : 8,581,224천원 ○ 기정예산액 : 8,160,628천원 ○ 비교증감 : 예산액 420,596천원, 증감률 5.2%
- 이하 안건자료 낭독 -	

위원 (OOO)	첫 번째, 회의자료 38쪽에 보면 맨 밑에 여비가 있는데, 혁신교사 해외연수, 산업체 연수 등 이런 것들이 쪽 안 한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되어있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이지요?
제안자 (OOO)	아니요.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감액입니다.
위원 (OOO)	남은 거라는 건가요?
제안자 (OOO)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을.....
위원 (OOO)	아, 이걸 이미 종료가 되어서 이만큼 남았다고요?
제안자 (OOO)	네.
위원 (OOO)	아, 저는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뺐다고 받아들여서 왜 이것을 못 했을까, 이런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쪽 살펴보다 보니 학생에 관한, 학생자치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학교예산을 보면.
위원 (OOO)	그것은 예결산심의 할 때.....
위원 (OOO)	그다음에 40쪽 4번에 보면 학생복지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로학생수당, 이게 있었어요? 아니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110만 원을 새로 만든 것이잖아요?
제안자 (OOO)	110만 원 증액입니다.
위원 (OOO)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집행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해서.....
제안자 (OOO)	당초 본예산에서는 근로학생 수당이 715만 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110만 원 증액입니다.

위원 (OOO)	그러면 근로학생이 있었어요?
위원 (OOO, OOO)	기숙사, 급식(관련해서 근로학생이 있었습니다.)
위원 (OOO)	알겠습니다.
위원 (OOO)	32쪽에 세출에서 예술교과활동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제안자 (OOO)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부 악기 구입 1,500만 원입니다.
위원 (OOO)	41쪽에 수업결보강비, 이게 무엇인가요?
위원 (OOO)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나 출장을 가게 되면 본인의 수업을 다른 선생님에게 보강을 맡기고 가게 돼요.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교과는 보강수당이 없고 이론수업일 경우에 대신 수업을 하신 선생님에게 보강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그 안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OOO)	자기 수업시간이 아닌 분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수당을 주는 거라고요? 아, 대근수당 주듯이.
위원장 (OOO)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 없습니까?(없음) 추가 질의나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제5의안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기록자 총무부 OOO	